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촉구”

SOCIETY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광주선언문...국민주권 기초 제7공화국 체제 수립 강조 특검 등 5대 요구안 제시...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주도한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가 내란세력 청산과 개헌 등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했다.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발표한 ‘광주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제7공화국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좌초된 이후 생겨난 극우 파시즘의 필연적 산물이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무산된 계엄 시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현실화될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내란’으로 규정한 광주비상행동은 “계엄령 해제 직후부터 시민의 헌신과 연대로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이끌었지만, 아직 내란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내란 옹호, 사법·행

정권력의 묵인,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광주비상행동은 내란특검 도입, 국민의힘 해산 및 관련 의원 제명, 내란 공작자 탄핵 및 수사, 개헌, 사회대개혁 추진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 ‘기본권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광주비상행동은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은 개헌안이 정치권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사회대개혁은 정치권의 몫이 아닌 시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통해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각 정당이 대선 공약에 사회대개혁 과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열린 광주비상행동 ‘광주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내란세력 청산과 개헌 등 사회대개혁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러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의 마중물만 아니라,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연대와 공동체, 평등과 자치를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광주비상행동은 전체 비상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1차 과제’를 달성한 이후 열린 첫 공식 회의였다.

비상행동은 회의를 통해 전국 비상행동 의향서 진로와 과제를 공유하고, 개헌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내란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윤석열과 관련된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 청산이 시

급하다”며 “즉각 구속 수사를 실시하고, 외환세력에 대한 탄핵 및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가 윤석열 정권의 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도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09 | 날씨 15:37
예보 19:00 | 날씨 04:21



| | |
|-----|------|
| 광주 | 7~21 |
| 목포 | 5~19 |
| 여수 | 9~16 |
| 순천 | 6~19 |
| 구례 | 4~21 |
| 광주 | 3~20 |
| 임도 | 6~19 |
| 흑산도 | 7~16 |
| 고흥 | 4~18 |
| 진도 | 4~18 |

| | | |
|----|-------|---------------|
| 목포 | 미물(고) | 12:28 / --:-- |
| | 쌀물(저) | 05:10 / 17:48 |
| 여수 | 미물(고) | 07:25 / 19:42 |
| | 쌀물(저) | 00:57 / 13:33 |

‘3억3500만원 편취’ 보이스포싱범 11명 적발

수사기관을 사칭해 3억3500만원을 쟁취한 보이스포싱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은 8일 보이스포싱 수거책 6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60대 여성 B씨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총 3억35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죄에 연루돼 개인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끝에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자금세탁과 수거에 가담한 또 다른 수거책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발급됐으며 배송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 보이스포싱범 피해예방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700만원 채무자 폭행·감금한 20대 유죄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105만원 상당)를 빼앗고, B씨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하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인 후배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때리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105만원 상당)를 빼앗고, B씨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빌린 700만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전과가 다수 있고 병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우발적으로 병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경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5·18재단 ‘기억·연대의 평화걷기’ 행사 연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참여...5·18·세월호 등 기억

5·18기념재단이 광주지역 교원단체(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사) 등과 오는 19일 광주 시내 일원에서 ‘2025 기억·연대의 평화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평화걷기 행사는 광주역사기념관에서 출발해 광주역사기념관을 지나, 이웃과 함께 걸으며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평화의 소녀상’ 등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광주지역 교원단체가 제안해 마련됐다. 행사는 5·18기념재단,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가 함께 추진한다. 걷기 행사는 4개 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와 2코스는 각각 5·18교육관과 광주시청에서 출발해 광주전변과 근남로를 따라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한다. 3코스는 전남대 정문에서 출발해 북구청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 푸른길로, 4코스는 양림미술관에서 출발해 3·1만세운동길, 남구 평화의소녀상을 지나 5·18민주광장으로 걷는다.

참여자들은 마지막으로 5·18민주광장에 집결해 기억·연대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타 지역에서 학급·단체별로 각자 기억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 자율적으로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인증을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걷는 거리에 따라 참가자들이 백혈병 소아암 돕기 자율 기부도 할 수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5·18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견고,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실천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

광주 도심서 연쇄추돌...인명피해 없어 그랜저 차량, 1t 포터 들이받아...시내버스도 추돌

광주 북구 도심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30대 여성이 몰던 그랜저 차량이 정차해 있던 1t 포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포터의 화물칸이 그랜저 차량을 올라탔다.

8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 누문동의 한 3차선 도로에

또 사고의 충격으로 1t 포터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의 좌측을 들이받는 2차 사고도 일어났다. 그랜저 운전자 A씨와 포터 운전자 B씨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또 사고의 충격으로 1t 포터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의 좌측을 들이받는 2차 사고도 일어났다. 그랜저 운전자 A씨와 포터 운전자 B씨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제품 소개

NAVER 나코스

종합광고기술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주 구름다리원

062) 376-5425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